

## 박물관 건립에 대한 소고 (博物館 建立에 對한 小考)

張慶浩

우리가 근년(近年) 갑자기 박물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비단 정부에서 계획추진(計劃推進)하는 종합박물관 건립(建立)에만 그 의의(意義)를 국한(局限)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인문과학(人文科學)과 자연과학(自然科學) 그리고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되는 계기(契機)라는 데서 더욱 그 의의(意義)를 깊게 가져보고자 한다.

이러한 뜻에서 여기서는 박물관이란 시설을 어떻게 옳게 인식(認識)할 수 있으며, 또 구상연구(構想研究)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윤곽적으로나마 논(論)하고자 한다.

박물관(博物館)의 역사는 최초로 애굽왕(埃及王) Ptolemai가 그의 궁전의 일부에다 승방(僧房) 강연실(講演室) 도서관(圖書館) 등을 설치하고 학문을 연구(研究)하며 회화(繪畫) 조각(彫刻) 등을 진열 관람시킨 데서부터 시작 되었다고 봄으로 그 역사가 오래 된다. 그 후에도 회람시대를 거쳐 중세(中世) 봉건제도기(封建制度期)에는 귀족계급층의 권위와 위력(偉力)을 과시(誇示)하기 위하여 개인(個人) 소유(所有)의 소(小)박물관(博物館), 즉(卽) 진열관(陣烈館)이 형성(形成)되다가 문예부흥기(文藝復興期)에는 고적(古蹟)과 고전문화를 되찾자는 의도에서 더욱 공공연(公共然)하 시설로서 박물관의 역할이 커졌던 것이다. 그 후 산업혁명(産業革命)과 때를 같이하여 자연과학(自然科學) 및 공학(工學)의 급격(急激)한 발달로 말미암아 자료의 수집(蒐集), 보관(保管), 연구(研究), 전시(展示), 등의 활발한 활동과 아울러 문화의 혜택을 시사(示唆)할만한 세계적(世界的)인 대박물관들의 확립(確立)을 도처(到處)에서 보게 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런던의 British museum(一七五九)과 National gallery(一八二四), 베르린의 아르테스 뮤지움(一八〇三), 뉴욕의 metropolitan 미술관(美術館)(一八七一), 와싱턴의 국립박물관 등이다.

현대의 박물관은 19세기부터 발전을 거듭하여 건축건립의 시점에서 다대(多大)한 활동과 그 기능적(機能的)인 기술을 위한 대가(大家)들의 연구(研究)에 의하여 건축양식(建築樣式)의 일대변혁(一大變革)을 가져오게 되었다. 「루코르부제」의 「성장하는 박물관안(博物館案)」이다. 그러했고, 「후랑크 로이도 라이드」의 「동선(動線) 및 구조계획(構造計劃)」이 그러했다. 이상 역사적(歷史的)인 윤곽(輪廓)을 말하였으나, 요컨대 초기 「유럽」에 있어서는 신전(神殿)이나 궁전(宮殿)의 일부가 박물관을 이루고, 동양(東洋)에 있어서도 또한 불전(佛殿)이 하나의 박물관이었다는 기원(起源)으로부터 시대의 변천과 기능적(機能的) 요구(要求)로 말미암아 수차(數次)의 개혁을 이루어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여기서 박물관의 개혁을 이루게 된 제요건(諸要件)이나 건축(建築)의 발달사(發達史) 등은 다음으로 미루고, 좀 순서를 뒤바꾼 감(感)이 없지 않으나 박물관이란 어떠한 것을 뜻하나 하는 박물관의 정의(定義)와 종류 및 평면(平面) 계획(計劃)에 따르는 박물관(博物館)의 기능(機能) 등(等)을 순서대로 개론(概論)하기로 하자.

먼저 박물관(博物館)이란 「자연과학(自然科學) 인문과학(人文科學)에 관한 모든 것을

조사 연구하며 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정리하여 전시하는 교육시설인 동시 Recreation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박물관은 「천연물(天然物)과 인공물(人工物)을 보존 연구하고 전시하는 시설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기술(記述)을 연관(聯關)하여 본다면 박물관은 초기에 신전(神殿) 궁전(宮殿) 등에서 발달된 정신적(精神的) 정서적(情緒的) 위엄(威嚴)을 주는 엄숙(嚴肅)한 국민교육 시설이며, 말하자면 자유개방된 학원(學園)의 사명(使命)을 띄고 일반 대중의 정서적(情緒的) 교양을 널리 계몽(啓蒙)해 준다.

이러한 중요한 사명(使命)을 지닌 박물관 외국에서는 「박물관법」이라는 성문법(成文法)이 조성(造成)되었고, 여기에 강력한 국가적 보호와 기초와 기틀을 이룩하여 박물관의 목적을 달성키 위한 학문을 추장(推獎)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박물관의 종류에 대하여 열거해 보면 관리형태(管理形態)에 따라 국립과 공립과 사립박물관이 있고, 목적과 기능의 양식에 있어서 표준박물관(標準博物館), 특수박물관(特殊博物館), 종합박물관(綜合博物館), 전문박물관(專門博物館) 등을 들 수 있다. 수집(蒐集)·보존(保存)·연구(研究)·교육(教育)의 네 가지 목적을 동시에 균일히 지닌 것이 표준박물관이고, 이 네 가지 목적 중 하나를 강조하는 목적을 지닌 것, 예를 들면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박물관(寶物殿), 기념관(記念館)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박물관(教育博物館), 아동박물관(兒童博物館) 등이 특수박물관(特殊博物館)에 속한다.

다음 기능(機能)에 따라 여러 분야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는 종합박물관(綜合博物館)과 또 미술관(美術館), 역사박물관(歷史博物館), 과학박물관(科學博物館), 기타 수족관(水族館), 동식물원(動植物園), 야외 박물관(野外博物館) 등의 전문분야(專門分野)의 내용을 위주(爲主)로 한 전문박물관(專門博物館)이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 있는 박물관은 대개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박물관(特殊博物館)에 속한 것이 소수(少數)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외국에 비하여 우리 나라 박물관은 그 규모나 수로 보아 너무나 빈약(貧弱)하다는 것을 여기에 제시해서 언급해 보기로 한다. 즉 일본(日本)에는 인구 約 20萬人에 1個所, 미국(美國)은 2萬5千名에 1, 독일(獨逸)은 5萬6천, 불란서(佛蘭西)는 4萬, 이태리(伊太利)는 8萬8천 명에 1個所를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나라는 10餘個所 미만으로 알고 있다.

다음 박물관의 공간계획(空間計劃)을 생각하기 전 기능을 먼저 연구하여야 할 것 같다. 즉 건축의 공간계획(空間計劃)은 그 건물의 목적과 기능(機能)이 낳아 주는 것이다. 외국의 예로 보아 박물관의 외형(外形)은 대개 그 나라 고유의 고전식양식(古典式樣式)이 많다. 그렇다고 그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현재 구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기능과 외형을 다 같이 살릴 수 있는 계획이 이루어 질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기능으로 말하자면 먼저 관객측(觀客側)의 요구에 응할 수 있게, 또 관리측(管理側)의 요구에 응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그럼 관객측(觀客側)에 서는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가.

첫째 관객이 가고자 하는 건물 각부를 용이(容易)하게 도달(到達)할 수 있게 할 것.

둘째 통로에 적당한 폭을 두어 순행로(巡行路)를 곧 찾을 수 있게 할 것.

셋째 전시효과(展示效果)가 있도록 전시물의 크기와 수량 관객의 수를 적당히 배치(配置)하여 질서(秩序)를 갖추어야 할 것.

넷째 관객의 피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할 것.

다섯째 학예원(學藝員)과 강사(講師)와의 접촉(接觸)을 용이(容易)하게 할 것  
여섯째 일반 전시실(展示室)과 연구용(研究用) 전시실(展示室)을 분리하여 시설할 것.  
일곱째 조명(照明)과 온도(溫度)를 관객에 맞도록 조절(調節)할 것.

다음 관리자측(管理者側)에 요구하는 것은

첫째 학예원(學藝員)의 필요한 작업공간이 쾌적하여야 한다.

둘째 관원과 관객이 민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관객이 관원의 처소(處所)를 우연히 드러내지 않도록 합리적인 동선계획(動線計劃)을 할 것

셋째 자료와 물품의 수령(受領), 기록, 격납(格納) 및 반출(搬出)에 용이하도록 적당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넷째 전시물의 준비, 수리, 분류, 기명(記名)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전시물을 건물 내외 운반에 편의하도록 직접 운반하는 시설을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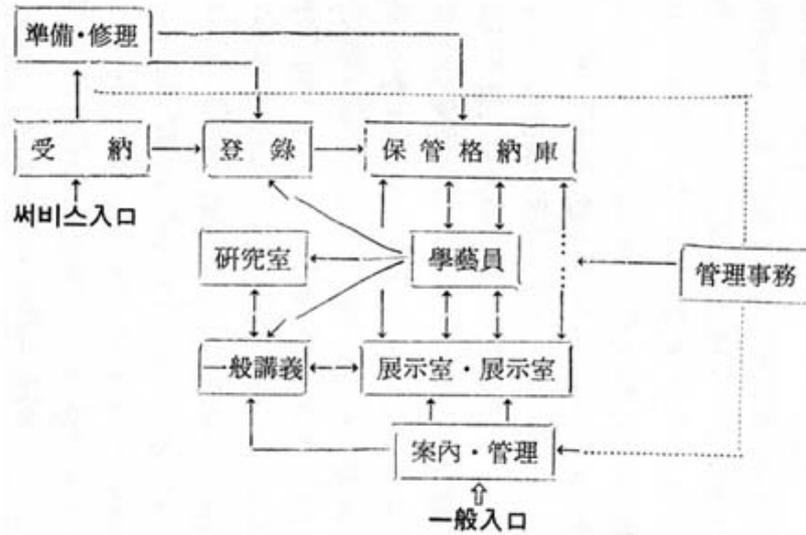
여섯째 건물의 물질적(物質的) 관리 즉 청소, 전구의 취환(取換)의 편의 기타 화재, 도난의 방지설비를 할 것.

일곱째 소장품(所藏品)을 보전(保全)하는 기계적 시설 즉 난·냉방 장치, 공기청정, 습도 조정 장치를 할 것.

이상 논(論)한 바를 보아 박물관의 기능을 어느 정도 포착(捕捉)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조건을 전부 만족해 줄 수 있는 계획이라면 기능적으로 안전하다고 보겠다. 이 기능(機能)계획(計劃)에 따라 필요한 내실(內室)과 구간(區間) 및 평면공간계획(平面空間計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배실계획(配室計劃)인 것이다. 그럼 그 필요한 실구간(室區間)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를 검토(檢討)해 보자. 먼저 관리자측(管理側)에서 필요한 구획(區劃)이란 물품 혹은 작품을 수납(受納)한 후 등록을 한다. 등록이 끝나면 전시준비(展示準備)를 해야 되고, 준비가 끝나면 보관격납고(保管格納庫)에 입고(入庫)하여 학예원(學藝員)을 통하여 연구가 필요하고 관리를 하고 또 일반에게 전시를 하게 된다.

다음 관객측(觀客側)에서 필요한 것은, 질서를 지키면서 안내(案内)를 받고 출입구(出入口)를 통하여 전시실(展示室)혹(惑)은 강의실(講義室) 도서실(圖書室)에서 열람(閱覽)을 하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도면으로 표시(表示) 한다면 다음과 같다.



<page 46 도표>

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배실계획(配室計劃)이 세워지는데 참고(參考)로 일반(一般)으로 통용(通用)되는 연면적(延面積)에 대한 각배실면적(各配室面積)의 비율(比率)을 첨가(添加)하여 기입(記入)하기로 하자.

대개 이상과 같은 구획(區劃)을 잡으면 배실계획(配室計劃)에 큰 차질(蹉跌)이 없다고 생각되나 여기서 각 실배치(室配置)의 적합성(適合性)을 생각하지 않으면 완전(完全)한 공간계획(空間計劃)을 연구하지 못할 것 같다.

관계부분(關係部分)	연면적(延面積)에 대한 %	특수(特殊)한 예(例)
전시실관계(展示室關係)	21~71	35~33
강의실(講義室)·도서실관계(圖書室關係)	3~40	4~24
사무실(事務室)	1~20	3~8
낭하계단(廊下階段)	1~20	2~10
보관격납고(保管格納庫)	2~25	6~15
수리공작(修理工作), 전기(電氣), 냉방(冷房), 기계(機械)	2~37	4~15
기타(其他)	1~15	1~8

첫째 전시실(展示室)에 관한 제실(諸室)은 관객(觀客)의 편의(便宜)를 보아 관객(觀客)이 외부에서 가장 접촉하기 용이하고 채광(彩光)이 좋은 위치(位置)라야 적당하다 그러므로 과거의 예로 보아 전시장(展示場)은 대개 지계(地階)나, 일층정도에 위치함이 상식화되었지만 현재 조명(照明) 과학의 발달과 그 밖에 인위적(人爲的)인 발전으로 수계층(數階層)의 전시실(展示室)도 가능케 하고 있다.

예를 들면 「F·L·라이트」나 「후랑소와」 「자마」 「뉴—」 등에 의한 안(案)을 보면 고층건물로도 채광(彩光) 및 순회동선(巡回動線)을 해결하였다.

둘째 강의실이나 도서관계열람실(圖書館係閱覽室)도 보통 하계(普通下階)에 둬 보

통이다.

셋째 사무실은 별로 층계의 구애(拘碍)를 받지않아도 Lift나 「에레베타」 시설로 좋은 배실처리(配室處理)가 된다고 생각된다.

넷째 계단에 대하여 전시실(展示室)의 상(床)은 되도록 연속적인 평면을 가지는 것이 관객의 부담감(負擔感)을 덜어주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하여, 「F·L·라이트」는 나선성(螺旋狀)의 연속성(連續性)있는 진열실(陳列室) 평면을 계획하여 (구배(句配)3/200) 미국의 「구겐하이무」 박물관을 一九五九年 건립(建立)하였다. 그러나 이런 방법 이외에도 관객의 부담감(負擔感)을 덜어주는 시설만 있다면 고층건물(高層建物)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계단대신 「에스카레이타」를 설치하고 휴게실이나 정원(庭園)이 내다보이는 「라운지」 등의 환기실이 가까이 있다면 되겠다.

다섯째 보관격납고(保管格納庫)에 대하여는 물품의 내외(內外) 전달역(傳達驛)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 그 통행 및 반출입(搬出入)이 용이한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대박물관(大博物館)에서는 직접 「트럭」 등 운송차가 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예도 있다. 또한 같은 공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collection을 보관 격납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F·L·라이트」는 회화수납고(繪畫收納庫)를 마치 책꽂이 측면판(側面板)에 작품을 붙여 놓은 것 같은 형태로 계획하였는데 이는 공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여섯째 수리공작실(修理工作室) 기타 설비실(設備室)은 소음관계(騒音關係)를 고려하여 되도록 방음효과(防音效果)가 있는 부분에 두는 것이 보통례(普通例)이다.

일곱째 기타(其他) 식당 휴게실 연구원작업실 방송실(放送室) 사진실(寫眞室) 표본제작실(標本製作室) 각종공작장(各種工作場) 시험실(試驗室) 인쇄실(印刷室) 감사실(監査室) 연구실(研究室) 등을 적당히 계획하여야 되겠다.

이상(以上)은 기능상(機能上) 건물배실계획(建物配室計劃)에 따른 각 실의 선정(選定)을 대략 말한 것이다. 이 외의 박물관으로서 중요시 되어야 할 계획은 설비계획(設備計劃)과 조명계획(照明計劃)이라 하겠다. 설비(設備)의 종류(種類)에는

1. 보관격납설비(保管格納設備)
2. 공기조화설비(空氣調和設備)
3. 방·소화설비(防·宵火設備)
4. 도난방지설비(盜難防止設備) 등이 주요한 설비(設備)라 하겠다.

첫째 보관격납설비(保管格納設備)를 함에 있어서 위의 기능에 대하여 논한 바와 같이 물품(物品)의 반출입(搬出入)이 용이(容易)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박물관과 같이 인부(人夫)들이 장품(贓品)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원시적(原始的)인 운반 방법은 피하여야 될 것 같다.

둘째 우선 실내에서 관객이나 관리인이 쾌적(快適)을 느끼게 온도 습도 등을 조절(調節)할 것이며, 또 소장품(所藏品)에 풍화작용(風化作用)을 촉진(促進)시키지 않게 대기(大氣)가 조정(調整)되어야 한다. 현재 석굴암(石窟庵)에 제습설비(除濕設備)를 하는 것도 이러한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으나 앞으로는 풍화(風化)되기 쉬운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즉 금속류(金屬類) 지류(紙類)로 된 문화재도 공기조정(空氣調整)이 되어있는 실내에 보관함을 장려(獎勵)하고 싶다.

셋째 방(防)·소화설비(消火設備)인데 박물관에서 문화적으로 가치있는 국보(國寶)들이 많이 진열(陳列)되는 예가 많다. 이러한 소장품(所藏品)을 소실(燒失)한다는 것은 국

가적으로 큰 손해를 가져오게 될 뿐 아니라 그 나라 역사의 일부를 망각(忘却)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박물관에 있어서 방(防)·소화설비(消火設備)는 중요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방화법(防火法)에는 일정한 면적마다 방화벽(防火壁)을 만들고 중요구조 부분에 방화재료(防火材料)를 쓴다든가, 혹은 방화철문(防火鐵門)을 설치하고 근일(近日)에 와서는 Air curtain도 사용되고 있다. 소화설비(消火設備)로는 주로 탄산(炭酸)가스와 같은 가스소화(消火)를 함이 좋다. 왜냐하면 화학용액(化學溶液)이나 물은 소장품(所藏品)에 직접 닿으면 피해를 게 되기 때문이다.

넷째 도난(盜難) 방지책(防止策)으로는 무엇보다도 개구부(開口部)를 완전히 설치하고 기타감시(其他監視)를 철저(徹底)히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며, 때로는 전자자동(電子自動) 경보기(警報器) 등을 설치하는 예도 있다.

다음으론 본 계획에 가장 중요하면서 기술을 요하는 조명설비(照明設備)에 대하여 논하여 보고자한다. 조명계획(照明計劃)을 깊이 논하고자 하면 너무나 한 지면(紙面)을 많이 차지할 뿐 아니라 필자(筆者)는 그렇게 많은 지면(紙面)을 올바르게 채워줄 지식(知識)조차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략(大略) 요점(要點)만 들어 설명(說明)하고자 한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박물관은 물품을 보호(保護)관리하는 외에 전시(展示)하는 사명(使命)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관객이 전시물을 어느 정도 용이(容易)하고 정확(正確)하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연구(研究)하여야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연구(研究)하는데 가장 중요(重要)하다고 생각되는 요소(要素)는

- 1 광원(光源)
- 2 조도(照度)
- 3 물품(物品)의 휘도(輝度)
- 4 광선(光線)의 색(色)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광원(光源)은 일반적(一般的)으로 태양(太陽)에 의한 천공광(天空光)이 있고 인공적(人工的) 발전(發展)에 의한 인공광(人工光)이 있다. 고대(古代)에는 대부분 자연광에 의한 조명(照明)에 의존(依存)하였기 때문에 전시실(展示室)의 천정고(天井高)나 실폭(室幅)의 제한을 받아왔다. 예를 들면 천정고(天井高)가 보통(普通) 6M내지 10M였고, 실폭(室幅)이 6M 내외라는 공식적(公式的)인 수자(數字)를 볼 수 있는데 최근 인공조명(人工照明)의 발달로 천정고(天井高)를 3,6M내지 4M까지 단축되었다. 광선(光線)의 위치는 전시물(展示物)의 반사(反射)로 인한 현휘현상(眩輝現狀)과 밀접(密接)한 관계(關係)가 있으므로 잘 연구(研究)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卽) 전시품면(展示品面)과 광원(光源) 및 관람자(觀覽者)의 눈의 위치(位置)가 반사용(反射用)전상에 있을 때는 현휘현상(眩輝現狀)으로 목적물(目的物)을 정확히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一般的)으로 전시물의 상방(上方) 법선(法線)으로부터 15도 내지 45도의 위치를 택하여 전시물에 부딪친 반사광선(反射光線)이 관객(觀客)의 시고하부(視高下部)에 떨어지게 한다. 이러한 원리(原理)로 전시실의 창 높이는 상면(床面)에서 2,5M 이상(以上)으로 함이 보통이다.

둘째로 박물관(博物館)의 조도(照度)는 실의 종류 전시물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지만 150내지 500LX가 보통(普通)이고, 200내지(乃至) 300LX가 추장조도(推獎照度)이다, 그런데 유리상자 속에 있는 전시품(展示品)은 상자 안팎에 조도(照度)가 같은 경우 유리면의 반사(反射)로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境遇) 상자(箱子)안에 조도(照度)를 밖의 조도(照度)보다 그 배(倍)로 하여 광원(光源)의 위치를 적당(適當)히 택(擇)하여 주면 무

난(無難)히 해결(解決)된다.

셋째로 휘도(輝度)에 대하여 논하기 전 「휘도(輝度)란 어느 물체(物體)의 밝기 정도를 말한다.」라고 간단히 개념(概念)을 말해놓는다면 상식적(常識的)인 이해가 갈 것 같다. 관람자(觀覽者)가 실외를 밝은 곳으로부터 갑자기 어두운 전시실(展示室)에 들어섰을 때 전시물(展示物)의 휘도(輝度)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명료(明瞭)하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될 것이다. 또 전시물의 휘도(輝度)와 배경(背景)의 휘도(輝度)가 같다고 보면, 그 어느 하나가 강조되지 않고 그대로 배경(背景)과 같은 중량(重量)으로 전시품(展示品)이 보이게 된다. 그리하여 전시물(展示物)의 휘도(輝度)와 배경(背景)의 휘도대비(輝度對比)를 二分之一 내지(內至) 五分之一로 하여 줌이 전시효과(展示效果)가 크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 여기서 적당한 전시물(展示物)의 휘도(輝度)는 계속유지(繼續維持)되어야 하며, 휘도(輝度)의 변화가 급작(急作)히 자주 일어난다면 현휘(眩輝)가 일어나서 물체가 명료(明瞭)히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종류의 전시품(展示品) 중에는 이러한 현휘현상(眩輝現象)이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의 금관(金冠) 같은 것이다. 즉(卽) 이러한 조각품(彫刻品)은 spot light를 사용(使用)하여 현휘(眩輝)를 갖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效果的)인 것이다.

넷째로 광선(光線)의 색에 대하여는 주로 인공조명(人工照明)일 때 연구(研究)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자연광은 물체에 반사(反射)되어 여러 가지의 색광(色光)을 발산(發散)하고 그 광파장(光波長)에 대한 「에너지」 분포(分布)도 다르다. 반면 인공조명(人工照明)은 물체에 국한(局限)된 색을 가져오게 되므로 자연광 하에서와는 다르게 보인다. 그러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명방법(照明方法) 및 종류의 특성(特性)을 혼합(混合) 이용(利用)하여 색온도를 맞추는 예가 많다. 예를 들면 백열구(白熱球)와 형광등(螢光燈)을 겸(兼)하여 사용(使用)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다.

이상 전시(展示)를 위한 채광론(彩光論) 대하여 그 골자(骨字)만 들어 간단히 말 하였고, 다음은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解決)해 나가면서 특히 인공적(人工的)으로 조명계획(照明計劃)을 하느냐 하는 방법을 일본(日本)의 소목중씨(小木曾氏)의 9個 항목(項目)을 들어 열거(列舉)하면

첫째 설계(設計) 이전 목표확인(目標確認) 시야계획(視野計劃) 조명수법(照明手法) 들을 구상(構想)할 것.

둘째 작업별(作業別) 소요조도(所要照度) 조도분포(照度分布)의 제한 등에 의한 조도계획(照度計劃)을 할 것.

셋째 색(色) 효율(效率) 등에 의한 광원(光源)의 선정(選定)

넷째 기구(器具) 및 그 배치(配置)를 결정할 것.

다섯째 광원(光源)의 수량을 결정하여 조도(照度)를 계산할 것.

여섯째 휘도(輝度)를 계산할 것.

일곱째 공비(工費)의 계산으로 경제적(經濟的)인 검토(檢討)를 할 것.

여덟째 계획조건(計劃條件)을 종합통찰(綜合洞察)할 것.

아홉째 조명계획도(照明計劃圖) 배선도(配線圖) 기구도(器具圖) 투시도(透視圖)

에 의한 계획을 표시할 것 등이 있다. 현재는 조명기구로서 주로 형광등(螢光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조도계획(照度計劃)을 만족시키고 있으나 박물관의 채광계획(彩光計劃)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즉 광선(光線)이 소장품(所藏品)에 미치는 영향 등도 연구하여야 할 것 같다. 미국(美國)의 예로는 실내에 필요한 조도(照度)를

충분히 현대식으로 계획(計劃)하여 관객에 불편이 없게 하나 불란서(佛蘭西)에서는 백열구(白熱球)를 사용하여 아주 고답적(高踏的)인 어두운 조명(照明)을 하고 있다 한다. 그 이유는 장물(藏物)의 퇴색(褪色)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퇴색(褪色)의 경향(傾向)은 청색(靑色)보다 적색계통(赤色系統)이 더 크다. 또 등종류(燈種類)에 따라 다르다. 즉 퇴색영향(褪色影響)을 많이 주는 광원(光源)의 순서는 주광(晝光) 형광등(螢光燈) 전등(電燈)이며, 이비율은 1.8對1.3對1이다. 그러므로 형광등(螢光燈)은 백열구(白熱球)보다 밝으나 소장품(所藏品) 보호에 안전하지는 못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요약한다면 박물관의 기능과 그 계획에 대하여 개념적(概念的)인 이론(理論)을 열거해 보았다. 다시 말하자면 박물관이란 물품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는 곳이며 그 건립을 계획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1 기능에 따른 동선계획(動線計劃)

2 채광계획(彩光計劃)

3 설비계획(設備計劃) 등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논하지 않았지만

4 운영관리계획(運營管理計劃)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는 것을 첨가해서 말하고 끝으로 전시품의 효과적인 진열방법(陳列方法) 등 몇 가지 더 논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나 박물관건립 부지(敷地) 선정에 대하여 몇자 더 쓰고 그치려 한다.

박물관은 고래(古來)로 번잡한 시가 중심지를 떠나 소음 및 먼지가 나지 않는 장소를 택하여 왔지만 시가(市街)에서 너무 격리되면 조용한 기분으로 연구 감상할 수 있으나 교통관계상 일반 대중적인 이용기관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현재 구미(歐美) 각국에서는 오히려 교통이 가장 편리한 시가중심지에 건립하는 예가 왕왕(往往) 있는 것이다. 부지는 물론 공원을 포함하여 넓게 잡아주는 것이 절대필요 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세계 유명한 역대의 박물관은 그 대부분이 장구(長久)한 시일을 거쳐 대부분이 관리운영상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고쳐 개축(改築)과 증축(增築)을 數3次 가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제 아무리 천재적 머리를 가진 유명한 건축가가 계획한 것이라도 건립후 다음 세대에 맞지 않는 불편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점으로 비추어 현재 우리 나라에서 행하는 박물관 건립계획(建立計劃)은 좀더 신중히 다루어 부지선정(敷地選定)으로부터 모든 면(面)에 걸쳐 연구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될 거대한 국가사업(國家事業)이라 하겠다.

(필자(筆者) · 문화재관리국건축담당관(文化財管理局建築擔當官))

## 광 대(廣大)

고려(高麗) 때부터 전래(傳來)하는 직업적인 예능인이다. 광대(廣大)는 사천(私賤)으로 재인(才人) 백정(白丁) 수척(水尺)들과 같이 사회의 하층(下層)에서 궁중(宮中)의 나례(儼禮)나, 중국사신(中國使臣)의 영접(迎接) 때 귀족(貴族)의 연석(宴席) 산대도감극(山臺都監劇) 배우(俳優)로서 예능(藝能)에 관여(關與)하고 남도창(南道唱)을 북도(北道)에 북도창(北道唱)을 남도(南道)에 소개(紹介)하여 문화(文化)의 전파자(傳播者) 역할(役割)까지도 하여 정부(政府)의 도감(都監)에 예속(隸屬)되어 있었다.

고려사(高麗史) 열전(列傳)에 광대(廣大)란 가면(假面)을 쓰고 희(戲)하는 자(者)로 지칭(指稱)하였고 시용향악보(時用鄉樂譜)와 이조실록(李朝實錄)의 1452년(문종 1年)에도 광대회(廣大戲)란 말이 나오며 최세진(崔世珍)의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는 광대회(廣大戲) 광대괴(廣大傀)라는 자의(字義) 설명(說明)하고 있다. 근래(近來)에는 창극우(唱劇優)라고도 불리우고 있으며 오산(烏山)에는 최근(最近)까지 재인청(才人廳)이라 하여 광대(廣大)의 회합(會合)이 있었다.